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9.27(금) ~ 2024.10.3(목)

제공일시 2024 10 11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 의 02 398 7675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4.9.27(금) ~ 2024.10.3(목)

제공일시 2024 10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글로벌 정책

1. "EU, 내달 4일 中전기차 관세 인상 투표"… 재차 연기 가능성도

- 유럽연합(EU)이 내달 4일 회원국 투표를 거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함

-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은 회원국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규정 초안을 전달받았으며, 내주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함

- 다만, EU와 중국 측의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투표일은 다시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함

(헤럴드경제 2024.9.28)

2. 美 에너지부, '폐쇄' 팰리세이드 원전 재가동 추진

- 미국에서 영구 폐쇄됐던 미시간주 팰리세이드 원전이 재가동됨

- 미 에너지부는 30일(현지시각) 인공지능(AI) 관련 산업 발달 등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전을 통한 전력 생산을 적극 추진하면서, 지난 2022년 폐쇄된 팰리세이드 원전 재가동을 위한 대출 지원금 15억2000만 달러(약 2조원)를 제공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힘

- 미 에너지부는 팰리세이드 원전 재가동을 통해 전력을 공급하는 2개의 업체는 이와 별개로 13억 달러(약 1조7507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고 밝힘

(글로벌이코노믹 2024.10.1)

3. 태국, 2025년 탄소세 시행 예고… 소비자 부담 최소화

- 태국 정부가 탄소세를 도입할 예정임. 26일(현지시각) 태국 재무부는 제조업체 간 공정성을 촉진하고 소비자 가격 인상은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저탄소 제품 생산을 위한 탄소세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힘

- 로이터는 태국 정부의 탄소세가 제품의 탄소 함량에 따라 산정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보도함

- 태국 재무부 파오품 차관은 "태국은 생명과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녹색 경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그는 탄소세가 물가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재무부가 소비세 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임팩트온 2024.9.30)

국내 정책

1. 韓·슬로바키아 정상회담 "원자력·AI 협력"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함

- 대통령실은 양국이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를 체결해 한국 기업의 슬로바키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틀을 마련했다고 밝힘

- 양국은 또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도 체결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을 확인함

-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산업용 로봇 등의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 가능한 분야도 모색하기로 함

(조선일보 2024.10.1)

2. 한미 주도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올해 2번째 고위급 경제협의회

-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1일 제9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함. 한미가 주도하고 있는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여짐

- 한미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을 꾀하고 있음

- 특히, 리튬·니켈·망간·희토류 등 핵심광물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MSP와 MSP 포럼을 통해 주요국과 자원부국들을 끌어들여 공급망 다변화에 진력하고 있음

(파이낸셜뉴스 2024.10.1)

3. 한중일 3국, 11월 부산서 플라스틱 협약 성안에 협력키로

- 한중일 3국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플라스틱 국제협약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때 협약이 성안될 수 있도록 의지를 모으기로 함

- 한중일 환경장관은 28~29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에서 제25차 3국 환경장관 회의를 진행(TEMM25)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합의문을 채택했다고 환경부가 밝힘

- 국제사회는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연내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11월 25일~12월 1일 부산에서 마지막 정부 간 협상위가 예정된 상황임

(연합뉴스 2024.9.29)

글로벌 기업

1. 토탈에너지, 텍사스서 더 많은 가스 자산 매입… 미국 내 천연가스 입지 강화

- 프랑스의 토탈에너지는 루이스 에너지 그룹과 텍사스 이글 포드 분지에 있는 일부 건식 가스 생산 자산의 지분 4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해 미국 내 천연가스 발자국을 확장하고 있다고 27일(현지시간) 밝힘

- 토탈에너지의 탐사 및 생산 사장인 니콜라스 테라즈는 "이번 인수로 미국 내 업스트림 가스 입지가 더욱 강화되고, 저렴한 업스트림 가스 공급으로 통합 LNG 입지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함

(한국경제TV 2024.9.28)

2. 中전기차 경쟁 격화 속 니오, 잇달아 신규 투자 유치

- 중국 전기차 시장의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지 전기차 스타트업인 웨이라이(니오·NIO)가 잇달아 국내외에서 신규 투자를 유치함

- 3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과 뉴욕 증시에 상장된 니오는 전날 성명을 통해 자회사 니오 차이나가 안후이성 허페이 정부가 지원하는 투자 컨소시엄으로부터 33억 위안(약 6천200억원)을 투자받았다고 밝힘

(연합뉴스 2024.9.30)

3. 美 웨스팅하우스, 핵 마이크로 반응기 시험 앞둬… 청정 에너지 시대 '성큼'

-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개발 중인 5메가와트 핵 마이크로 반응기 '이빈치(eVinci)'가 2년 안에 시험 가동될 예정이라고 쿨다운이 28일(현지시각) 보도함. 보도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는 최근 미국 에너지부(DOE)의 지원을 받아 '프런트엔드 엔지니어링 및 실험 설계' 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발표함

- 이로써 이빈치는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에 설치될 마이크로 반응기 실험 시범(DOME) 테스트베드에서 평가될 수 있는 세 가지 모델 중 하나가 됨

(글로벌이코노믹 2024.9.29)

4. 호주 실트랙스, '실리콘 양극판 탑재' 연료전지 출시

- 호주 연료전지 회사 '실트랙스(Siltrax)'가 실리콘 기반 연료전지를 공식 론칭함. 실리콘의 강점을 모아 성능과 내구성 모두 우수한 연료전지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함

- 28일 실트랙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근 실리콘 양극판을 활용한 연료전지를 출시함. 양극판은 연료전지 스택 내에 위치, 수소와 산소를 전기로 변환하는 촉매 역할을 함

- 실트랙스는 핵심 부품인 양극판을 실리콘으로 제작했음. 이를 통해 연료전지의 전력밀도와 성능, 내구성 모두 타사 제품 대비 향상됐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임

(더구루 2024.9.28)

국내 기업

1. 현대차 美 메타플랜트 '3.5조 슈퍼공급망' 완성

- 현대자동차그룹의 전 세계 첫 전기차(EV) 공장인 현대차그룹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가 협력 업체들과 공급망을 완성하고 10월 공식 양산에 돌입함

- HMGMA 중심을 둘러싼 17개의 국내외 협력사들은 기존 투자계획보다 60% 이상 투자 규모를 늘린 것으로 파악됨

- 미국 GM과 손을 잡은 현대차그룹이 HMGMA를 앞세워 미국 EV 시장 1위 테슬라를 빠르게 추격할 것으로 보여짐

- 신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의 EV 판매는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임

(서울경제 2024.10.1)

2. 삼성SDI, 美 첫 배터리 공장 가동 코앞… AMPC 수혜 본격화

- 삼성SDI가 오는 4분기 북미 첫 배터리 셀 공장 가동을 시작함. LG에너지솔루션, SK온과 달리 북미에 생산 기지가 없던 삼성SDI는 연내 첫 양산을 시작해 내년부터 수천억원 규모의 AMPC(첨단제조세액공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됨

-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는 올 4분기 중 미국 완성차업체 스텔란티스와 합작법인인 '스타플러스에너지'의 1공장 가동을 시작함

- 북미 공장 가동이 본격화하면 삼성SDI의 AMPC 수혜액도 대폭 늘어날 예정임. 내년에는 그 규모가 8000억원대로 늘 것으로 예상됨

(뉴시스 2024.9.30)

3. 42조로 액침냉각유 시장… 에쓰오일 연내 개발 완료

- 에쓰오일이 인공지능(AI) 시대 신성장 산업으로 통하는 액침냉각유(油) 개발을 연내 마무리함. 1일 정유 업계에 따르면, 에쓰오일은 액침냉각유 개발 작업의 마무리 단계인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액침 냉각유를 양산하려면 일정 기간 실증 작업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이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돼 연내 개발 절차를 마칠 가능성이 큰 상태인 것으로 알려짐

(서울경제 2024.10.1)

4. SK에코플랜트, 유럽 물류 중심 네덜란드에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 준공

- SK에코플랜트의 자회사 SK테스가 유럽의 물류 중심 네덜란드에 지난 26일(현지시간)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전처리 공장을 준공함.SK테스는 서유럽 전략 거점을 추가 확보하며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함

- 인근에 추가로 2단계 전처리 공장 건설을 추진 중이며, 2025년 말 준공되면 연간 총 2만5000t의 블랙매스를 생산할 수 있음. 블랙매스는 후처리 공정을 거치면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희소금속을 뽑아낼 수 있음

(블로터 2024.9.28)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4.9.27(금) ~ 2024.10.3(목)

제공일시 2024 10 11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 정책센터 문의 02 398 7675

영국,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정책 교훈은?

- 영국의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을 중단했음. 런던에서 세계 최초 석탄화력발전소가 가동된 지 142년 만임. 이로써 영국은 주요 7개국(G7) 중 석탄 발전을 포기한 첫 번째 나라가 됐음

- 30일(현지시각) 로이터, 가디언, BBC 등 주요 외신은 잉글랜드 중부 도시 노팅엄셔에 있는 랫클리프 온 소어(Ratcliffe-on-Soar) 석탄화력발전소가 당일 56년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고 보도했음. 산업혁명의 중심지인 영국에서 1882년 세계 최초의 석탄화력발전소 홀본 바이아덕트 발전소가 세워진 지 142년 만임

- 마이클 생크스 영국 에너지부 차관은 "오늘 랫클리프 온 소어의 가동 중단은 한 시대의 종식을 의미하며 140년 이상 우리나라에 전력을 공급한 석탄 노동자들이 자랑스럽다. 우리는 여러 세대에 감사의 빚을 졌다"고 말했음

- 2012년 이래 영국에서는 총 15개의 석탄발전소가 문을 닫거나 연료를 전환했음. 이에 따라 2012년 영국 전력 생산의 39%를 차지했던 석탄 발전은 지난해 1.6%까지 줄었음.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영국의 지난해 전력 생산에서 천연가스가 33.7%, 풍력·태양광 33.5%, 원자력 14.3%, 바이오에너지가 10.2%를 차지했음

- 2012년부터 2023년까지 영국의 전력 부문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160메가톤(Mt)에서 41Mt로 74% 감축됐음. 이 과정에서 약 880Mt의 탄소 배출이 방지됐으며, 이는 영국의 2023년 전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두 배 이상에 해당함

- 석탄 발전의 감소는 주로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의해 대체됐음. 풍력과 태양광 발전은 2012년 6%에서 2023년 34%로 급증했는데, 특히 풍력 발전이 315% 증가하며 성장을 견인했음. 같은 기간 천연가스의 점유율은 28%에서 34%로, 6%p만 증가했음. 다만, 여전히 천연가스가 전력 생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아직 청정 전력 체제로의 전환으로 갈 길을 멀다고 볼 수 있음

- 키어 스티머 영국 총리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2030년까지 전력 생산으로 인한 탄소 배출을 없애기 위해 육상 풍력 2배, 태양광 3배, 해상 풍력 4배 늘리겠다고 공약했음

-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는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 교훈 5가지를 제시했음. △점진적으로 강화된 탈탄소화 목표 △석탄의 경제성을 낮추기 위한 탄소 가격 인상 △풍력 발전에 대한 정책 지원 △재생 에너지에 유리한 시장 개혁 △전력망 투자임

- 영국은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탈탄소화 목표를 통해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음. 2008년에 제정된 기후 변화법(2019년 개정)은 화석 연료를 사용한 발전이 넷제로 경제를 달성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했음.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한다는 목표가 2015년에 발표됐음

- 2013년 도입된 최저 탄소 가격 제도는 석탄 발전 비용을 천연가스보다 비싸고 재생 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만들었음. 또한, 2016년 도입된 산업 배출 지침은 대형 발전소의 대기 오염에 대해 더 엄격한 제한을 설정했는데, 규제를 준수하려면 노후화된 영국 석탄발전소를 고비용으로 개선해야 했기 때문에 노후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는 것의 경제성을 떨어뜨렸음

- 2013년 영국은 모든 신규 화석 연료 발전소에 대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한도를 450g/KWh로 정했음. 이는 값비싼 탄소 포집 및 저장 장치가 장착된 경우에만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사실상 신규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가 배제됐음

- 안정적인 해상 풍력 발전 지원 정책이 석탄 발전을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 2019년 발표된 해상 풍력 부문

협정은 해상 풍력을 영국의 주요 산업 중 하나로 지정하고, 정부 조치가 산업 성장과 어떻게 협력하고 지원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했음

- 영국 정부는 시장 개혁을 통해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했음. 2014년에 도입된 차액계약제도(Contracts for Difference, CfD)는 새로운 발전소에 대해 경쟁 입찰을 통해 가격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했음

- 마지막으로 전력망에 대한 투자와 혁신은 신재생 에너지의 보급 속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음. 2010년에 신규 발전소를 위한 새로운 전력망 개선 방식이 도입되면서 보급 기간이 단축됐고, 2015년부터는 전력망 운영자가 매년 전력망 개선 권장 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 도입됐음

- (임팩트온 2024.10.2)